개성공단입주기업들, 방북 신청

개성공단 방북승인 호소문 발표… 시설 노후화 · 부식 방지 등 재가동 앞서 시설 점검 해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26일 시설 점검을 목적으로 다음달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승인해줄 것을 정부에 신청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5번째 방북 신청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북 신청 내용과 함께 '개성공단 방북승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방북 신청은 우선 개성공단에 방치돼있는 기계설비들에 대한 점검이 목적으로 재가동에 앞서 시설 점검을 해야 후속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차원이다. 시설 노후화와 부식 방지를 위해 일단 점검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 총 200여개 기업이 방북하겠다는 신청서를 이날 통일부에 제출했다.

방북 대상은 투자기업 123곳, 영업기업 80여곳 등으로 지난해 10월 방북을 신청했던 40여명보다 훨씬 큰 규모다. 이처럼 많은 수를 방북 대상으로 신청한 것은 2016년 8월 세 번째 방북 신청 이후 처음이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창올림픽이 종료되는 이달 25일 이후 방북 신청을 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번 방북 신청은 새 정부 들어 지난해 10월 이후 2번째 신청이며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로는 5번째다.

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우리의 개성 공장과 설비들이 남북관계 단절로 방치된 지 2년이 넘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인의 자식과도 같은 공장 시설 점검과 보존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가 두고나온 공장과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4차례나 방북신청을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서해 군통신선과 경의선 육로 통행 등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열린 점을 들어 "이번은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조심스럽게 방북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우리 기업인들이 재산을 확인하고 설비의 노후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북 양당국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바란다"며 "이를 위한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개성공단 방북승인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은 방북 신청을 하더라도 서해 군통신선과 여러 가지 연락 채널이 미비된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신청이 북측에 전달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설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방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기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북 신청이 당장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남북 간 긴장 완화로 인해 모멘텀이 만들어진 이 기회를 민간교류 차원에서 이어가자는 소박한 차원"이라며 "우리 정부도 이를 수용하고 북측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격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인터넷뱅킹 대출 하루 9900건… 1년새 304% 폭증

지난해 인터넷뱅킹의 대출이용 건수와 금액이 하루 평균 1만건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이 쉬워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7년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인터넷뱅킹의 대출신청 건수와 금액은 일평균 9900건, 1194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304%, 199.1%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9년말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지난 4월 케이뱅크에 이어 7월 카카오뱅크의 출현으로 인터넷뱅킹 대출 상품이 늘어난데다, 시중 은행들도 관련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체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이용건수와 금액은 각각 9491만3000건(8.8% 증가), 43조4646억원(2.7% 증가)으로 대출신청 이용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채 되질 않는다. 이용건수 기준으로는 조회서비스가 8657만5000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이용금액 기준으로는 자금이체가 43조3452억원으로 가장 많다.

전체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고객 수는 1억3505만명으로 1년새 1251만명(10.2%) 증가했다. 이중 실제 이용하는 고객숫자도 6584만명으로 전년보다 861만명(15.1%) 늘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이용자가 늘면서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9089만명으로 지난해말보다 1253만명(16.0%) 급증했다. 이용고객수도 1년 전보다 26.4% 증가한 5894만명이나 됐다.

전체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중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수의 비중도 67.3%로 지난해말보다 3.4%p 증가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뱅킹의 이용실적도 일평균 5857만건으로 전년보다 10.6% 증가했고, 이용금액도 3조9630억원으로 26.2%나 늘었다. 특히 모바일뱅킹 건당 이체금액은 7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원 상승했다.

한편 은행권의 입출금·자금이체 거래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비중은 45.4%로 집계됐다. 조회서비스 이용비중도 인터넷뱅킹이 83.9%로 창구(10.1%)와 CD/ATM(2.9%) 등을 제치고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이스타항공, 기내 이벤트 실시

3월 4일까지… 풀무원 돈코츠라멘 제품 등 기념품 증정

이스타항공이 다양한 기내 이벤트로 고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한다.

이스타항공은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일주일간 일본 도쿄, 삿포로, 오키나와 일부 노선 탑승 고객들을 대상으로 새로 출시한 풀무원 생면식감 돈코츠라멘 제품과 이스타항공 기념품을 증정하는 기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라멘 증정 이벤트는 해당 노선 출국편에서 승객들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진행하고 게임에서 이긴 승객에게는 일본 여행을 마친 후 자택에서 돈코츠라멘 1박스를 받아볼 수 있다.

고객들은 기내에서는 승무원들과 함께한 게임으로 일본여행의 설렘을 나누고 돌아와서는 현지에서 맛본 라멘의 식감까지 재현한 돈코츠라멘 상품으로 다시 한 번 일본 여행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을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이밖에도 국제, 국내노선에서 여행 전 설렘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방콕으로 향하는 ZE511편은 객실 이벤트 팀이 탑승하여 레크레이션, 칵테일 쇼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과 함께 즐거운 비행을 선사하고 이스타항공 로고상품 등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기내에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가위바위보 게임부터 LED댄스, 풍선 릴레이 등 다양한 기내이벤트를 통해 승객들과 함께 여행의 추억을 더하고 있다"며 "이스타항공의 기내 이벤트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나누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시스

최규성 전 국회의원, 농어촌공 신임 사장 선임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으로 최규성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임됐다.

26일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제9대 신임 사장으로 전북 김제 출신인 최규성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신임 최 사장은 3선(17·18·19대) 의원으로 활동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활동 기간 동안 쌀 목표가격제 개선, 쌀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방지책 마련 등 농어촌에 필요한 현실적 대안개발과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다.

신임 최 사장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의 업무를 시작했다. /김민근 기자

춘천·완주 등 9곳서 지역 푸드플랜 시범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푸드플랜 사업을 시범 구축·운영할 자치단체 9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광역형 1곳(충남), 도시형 2곳(서울 서대문구·대전 유성구), 농촌형 2곳(충남 청양군·전남 해남군), 복합형 4곳(강원 춘천시·전북 완주군·경북 상주시·전남 나주시)이다.

앞서 지역 푸드플랜 시범사업 공모에 지자체 29곳이 신청했었다.

지역 푸드플랜이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로컬순환시스템을 통해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도농 상생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도모하는 지역 단위의 먹거리 종합전략을 말한다.

각 지자체는 푸드플랜 수립에 필요한 지역 내 먹거리 심층 실태조사, 먹거리 현안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정부로부터 연구용역비, 교육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을 집중 지원받는다.

각 지자체가 연말까지 수립한 푸드플랜은 표준 모델화 작업을 거쳐 전국 지자체에 보급될 예정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역 푸드플랜 구축을 2020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확산시키는 게 목표"라면서 "지역 푸드플랜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채권금리 하락 가능성"

오늘 금통위 금리동결 유력

이번주 국내 채권시장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주(2.265%)보다 0.02%포인트 오른 2.285%로 장을 마쳤다.

중장기물은 상승 폭이 더 컸다. 10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0.029%포인트 오른 2.792를 기록했고, 20년물은 2.730%로 0.060%포인트 뛰었다.

국고채 금리는 설 연휴 동안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호조에 따른 대외 금리 상승을 반영하면서 약세로 출발했지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의사록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리 상승폭을 되돌렸다.

다만 기재부가 3월 국고채 50년물 발행 계획을 발표해 초장기물 금리는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번주에는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미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보고가 예정돼 있다.

27일 열리는 금통위는 다음달말 임기 만료를 앞둔 이주열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다.시장은 기준금리를 만장일치 동결하고 이 총재가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일 만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 혹은 금리 급등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언급이 나오면서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현지시각 27일과 다음달 1일 예정된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역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 성향인 데다 취임 전후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기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 쏠림을 유도할 만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IBK투자증권 김지나 연구원은 "어차피 3월FOMC 회의를 통해 새로이 구성된 FOMC의 성향과 올해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시장에 시그널링을 할 필요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에 비해 국내 경기 여건은 다소 어려워 금통위는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에 비해 국내 채권시장은 상대적인 강세 및 낮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뉴시스